

2013년 8월 (제 11호)

National Maritime Museum Webzine

바다 가 들려주는 이야기



바다

유치환

이것뿐이로다
 억만 년 가도
 종시 내 가슴 이것뿐이로다
 온갖을 내던지고
 내 여기에 펼치고 나 누웠노니
 오라 어서 너 오라
 밤낮으로 설레이 스스로도 가늠 길 없는
 이 설은 몸부림의 노랫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오직 높았다 낮았다 놀러 뒀은
 태초 생겨날 적 그대로의 한 장 비정의 하늘 아래
 구할 길 없는 절망과 회오의 슬픔과 노염에
 찢고 덩굴고 부르짖어 못내 사는 나
 때로는 스스로 달래어
 무한한 운유의 기름 되어 창망히 잤아 누운 나

아아 내 안엔
 낮과 밤이 으르대고 함께 사노라
 오묘한 오묘한 사랑도 있노라
 삼시에 하늘을 무찌르는 죽음의 포효도 있노라

아아 어느 아슬한 하늘 아래
 만 년을 다물은 채 움짖 않고
 그대로 우주 되어 우주를 우러러 선 산악이 있다거니
 오라 어서 너 오라
 어서 와 그 산악처럼 날 달래어 일깨우라
 아아 너 오기 전에
 나는 영원한 광란의 불사신
 여기 내 가슴 있을 뿐이로다

유치환(柳致環, 1908.7.14~1967.2.13)

1931년 문예월간 등단
 부산시 문화상, 아시아재단 자유문학상, 제7회 대한민국예술원상, 서울
 특별시문화상 수상
 시집으로 「울릉도」, 「청령일기」, 「청마시집」, 「제9시집」, 「유치환선집」,
 「뜨거운 노래는 땅에 묻는다」, 「미루나무와 남풍」, 「파도야 어쩌란
 말이나」 등이 있다.

울릉도 저동항

바다가 들려주는 이야기

C O N T E N T S

PART 01	열린마당 동해! 절경 관동팔경 낙산사洛山寺 시와 그림	03
PART 02	박물관 둘러보기 바다를 향한 도전과 지혜 1(장보고)	05
PART 03	기획전시 기획전 「뉴욕자연사박물관 기후변화와 해양환경」부대행사 “토크콘서트 - 기특한 만남”	07
PART 04	소장품 이야기 나전 빗집(해양151)	09
PART 05	박물관 사람들	11
PART 06	박물관 교육행사	12
PART 07	박물관 소식	13
PART 08	관람후기	14



열린마당

동해! 절경

관동팔경 낙산사 洛山寺 시와 그림

“기년 전 화마 火魔는 아픈 추억으로 간직하고 그 뜨거운 불길도 곳곳이 버렸으니 푸른 생명력이야 말하여 무엇하리....”

박동국 朴東國, 守, Arches지에 먹과 수채물감, 80x40, 2013

국립춘천박물관에서 지난 5월과 6월에 열린 “양양 낙산사”특별전에 출품된 강원도 작가 박동국의 작품이다. 그림에서 가파른 벼랑 끝 애처롭게 서 있는 의상대 앞 소나무는 동해로 동해로 뻗다가 이윽고 관음이 화현하듯 우주를 향해 온 몸을 일으켜 바다와 우주는 하나가 된다. 낙산사에서 바다와 나, 우주와 나는 범아일여 梵我一如가 된다.

동해 낙산사라고 했던가. 시인 고은 高銀 (1933~)은 동해와 더불어 오랜 세월을 그 파도 소리에 싸여서 살아온 낙산사이기에 동해와 함께 감탄사를 붙여 불러야 한다고 했다.

동해 낙산사는 의상 義湘 (625-702) 스님이 중국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동해 해변가에서 관음보살을 만나고 지은 관음도량으로, 관음의 진신이 머무는 성지 聖地다. 고려시대부터 의상 스님이 남긴 아름다운 자취를 찾고자 시인묵객들의 발길이 분주하였고, 조선시대에는 질푸른 동해바다 위로 장엄하게 떠오르는 새벽 일출을 목격하려는 수많은 탐승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폭염과 긴 장마, 불안한 전력 수급으로 인해 유달리 더 무더운 이 여름, 선인들이 들려주는 바다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본다.

고려 중기 문단을 대표하는 임춘 林椿 (생몰년 미상)의 「동행기 東行記」에서는 강릉에서 양양으로 가는 도중 어스름 저녁 빛, 어촌의 등불이 가물거리고, 여행객의 서글픔과 바닷가 어촌마을의 비루함을 애잔한 시 한수로 읊는다.

居民寂寞半溟濤 서러운 주민들 태반이 바다에 나가
百丈峯頭插麗譙 백 길 산마루에 우뚝 솟은 높은 집
帆影輕飛魚市闊 돛대 그림자 사뿐히 오면 어물전은 넓어만 가고
浪花爭蹙海門遙 물결이 다투어 주름지니 바다의 어귀
아득하여라.

조선 1554년(명종9) 봄, 강원도 관찰사로 이곳 낙산사를 찾은 석천 石川 임억령 林億齡 (1496-1568)은 변화무쌍한 낙산 바다의 모습을 한 편의 서사시로 토해내고 있다. 그의 「낙산사에 불임 (題洛山寺)」이라는 시에서는 지느러미가 푸른 하늘을 가릴 만큼 거대한 고래가 갑자기 파도를 일으켜 온 세상을 어둡게 하는가 하면, 하얀 포말을 뿜어 천 리를 뿌렇게도 한다. 생존을 다투는 싸움의 끝은 핏빛 파도로 이어지고, 죽어 썩은 뼈가 모래톱에 쌓인다.

(중략)
俄有白龍升 이윽고 흰 용이 하늘로 올라가
裂缺兼霹靂 하늘이 갈라지더니 벼락이 치네.
蜿蜿沒羸雲 꿈틀꿈틀 달리던 구름이 건히고
爪牙森劍戟 발톱과 이빨이 칼, 창처럼 뾰뾰하네.
去入無窮鄉 끝이 보이지 않는 바다로 들어가니
猛氣拔木石 사나운 기운 목석도 뽑을 듯하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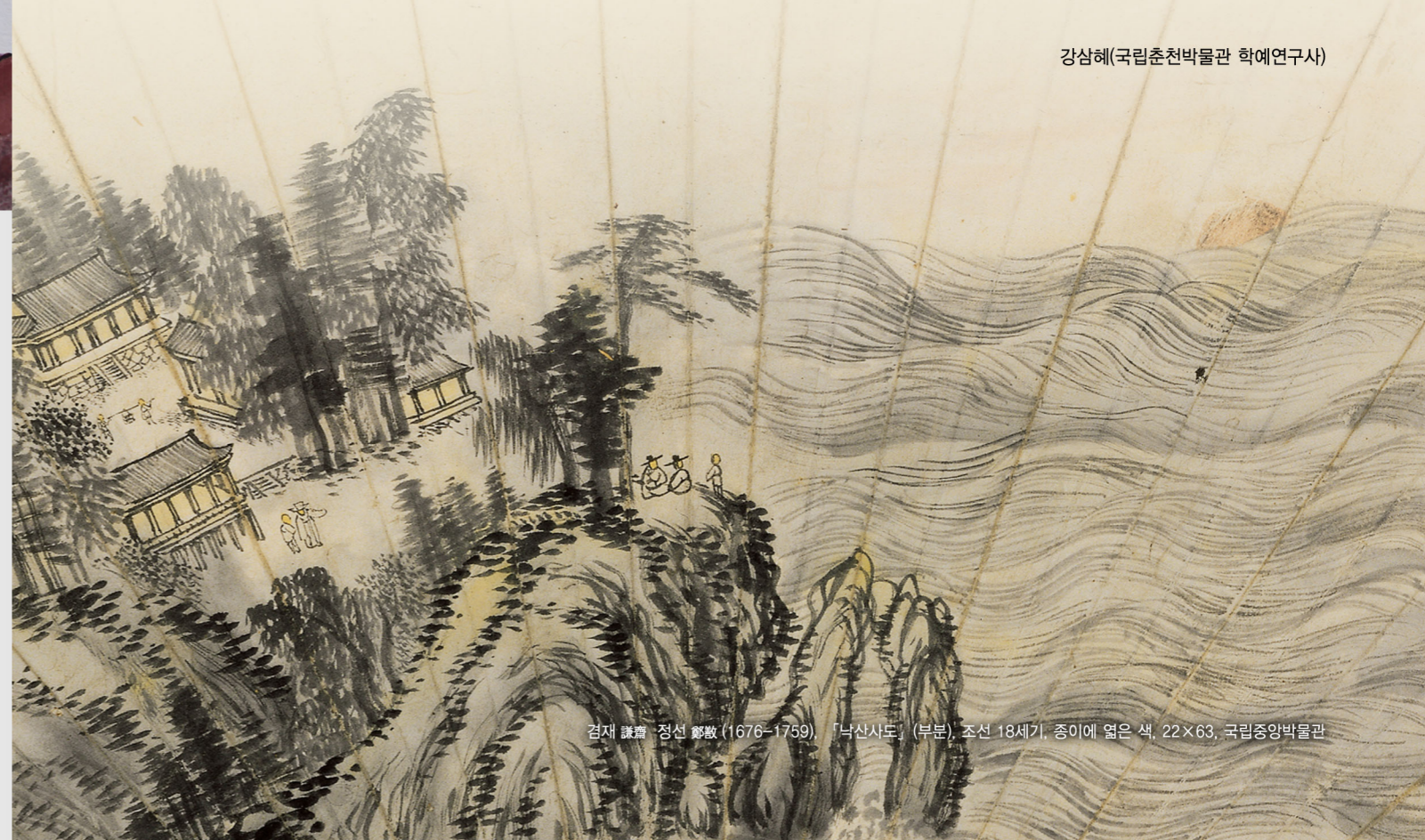
銀柱倒插濤 은 기둥이 뒤집혀 내리꽂히는 파도
蕩似天河坼 출렁이는 물결 은하수가 터진 듯해.
(중략)

마치 용이 오르고 문세 文勢가 날아 꿈틀거리는 듯 그의 시는 장중하다. 당시 낙산사 앞바다에는 고래가 자주 출몰하였던 듯하다. 임억령보다 한 해 전, 28살의 나이로 낙산사를 방문한 홍인우 洪仁祐 (1515-1554)는 그의 「관동일록 關東日錄」에서 낙산사 동쪽 별채에서 묵게 되었는데 창문을 열고 멀리 바라보니 홀연 고래 떼가 물을 뿜어내는 모습이 장관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고래 등처럼 꿈틀거리는 검은 바다의 모습을 화면 가득 담아낸 이 그림은 겸재 정선의 그림이다. 부채에 그려진 그림으로 화면 오른쪽 일출 장면과 그것을 감상하는 점경인물 點景人物이 화면을 차지하고 있고, 좌측 낙산사 경내에서는 그들을 태우고 온 남여를 맨 승려들의 모습도 보인다. 일렁이는 파도를 뚫고 치솟아 오르는 일출과 그것을 감상하는 인간의 모습이 혼연일체가 되는 장엄한 순간을 포착하여 그대로 전달하고 있다.

동해 바다를 끼고 이어지는 관동팔경 여덟 곳마다에는 바다가 지어낸 갖가지 아름다운 노래와 시, 바다를 품고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끝도 없는 파도와 같이 우리 가슴으로 밀려온다.

강삼혜(국립춘천박물관 학예연구사)



겸재 謙齋 정선 鄭敎 (1676-1759), 「낙산사도」 (부분), 조선 18세기, 종이에 엮은 색, 22x63, 국립중앙박물관



박물관 둘러보기

바다를 향한 도전과 지혜 1(장보고)

해양역사·인물관은 바다를 향한 도전과 지혜라는 주제를 제시하고, 역사 속 해양인의 활동을 통해 시대별 해양의식 변화 및 발전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이 전시관의 주 전시는 우리나라 역사에서 대표적인 해양인물로서 '바다를 개척하고', '바다를 수호'한 인물을 중심으로 전통시대 해양력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중국 직산박물관내 장보고상

한국인들에게 대표적인 해양인물을 꼽으라면 대부분 이순신을 떠올릴 것이다. 그리고 드라마 '해신' 등을 통해 잘 알려진 장보고를 이야기 한다. 이렇듯 우리나라 역사에서 바다를 무대로 활약한 대표적인 이는 장보고 張保阜 와 충무공 忠武公 이순신 李舜臣 을 꼽을 수 있다. 장보고는 해양개척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한다면, 이순신은 바다를 지켰던 분이였다.

장보고는 신라의 무장으로서 본명은 궁복 弓福 또는 궁파 弓巴 로 '활을 잘 쓰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당의 대성 大姓 이었던 장 張 씨 성을 따서 사용하였다고 전한다. 그는 일찍이 당나라에 건너가 무령군소장 武寧軍小將 이 되었으나, 해적들에게 납치된 신라인 노비를 보고 분노하여 신라로 귀국하였다. 해적들의 인신매매를 근절시키기 위해 신라 흥덕왕 3년(828년) 왕의 허락을 얻어 1만의 군사로 해로의 요충지 청해 淸海 (지금의 莞島)에 진을 설치하고 가리포 加利浦 에 성책을 쌓아 항만시설을 보수하여 거점을 마련하였다. 흥덕왕으로부터 청해진대사 淸海鎮大使 로 임명받게 되자 휘하 수병을 훈련해 해적을 완전히 소탕하였다. 해적을 소탕하고 서남해안의 해상권을 장악한 장보고는 동서양의 무역망을 하나로 엮어 문화 교류에 이바지하였으나, 841년 염장에게 암살당하였다. 장보고의 요청으로 장도에 설치된 청해진은 군사적 요충지였으며, 신라·당·일본을 잇는 해상무역 활동의 중심 기지였다. 청해진 대사로 임명된 장보고는 1년 만에 노예무역을 없애고 청해진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해상 교통권을 장악하여 시장을 확대하고 동아시아 무역망을 하나로 엮는 데 성공하였다.

장보고에게 청해진을 허락했던 흥덕왕이 아들 없이 죽자, 흥덕왕의 사촌동생인 상대등 上大等 균정과 흥덕왕의 조카 제룡이 왕위를 두고 다투었다. 이 싸움에서 균정이 죽고 제룡이 희강왕 僖康王 이 되었다. 희강왕 3년(837년) 균정의 아들 우징 祐徵 (뒤의 神武王)은 가족과 함께 청해진으로 달아나 장보고에게 몸을 의탁했다. 우징은 장보고가 청해진 설치를 건의할 때 시종으로 있었던 인물로, 그때의 인연이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왕실의 권력 다툼을 피해 몸을 맡길 만큼 장보고의 청해진은 독립적이고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었다.

이듬 해 장보고는 우징과 함께 반란을 일으켜 839년 민애왕 閔哀王 을 죽이고 우징을 왕위에 오르게 하여 신무왕은 그를 감의군사 感義軍使 로 삼는 동시에 식실봉이천호 食實封二千戶 를 봉했고, 그의 세력은 중앙정부를 위협할 정도가 되었다. 신무왕이 죽고 문성왕 文聖王 이 즉위하자 진해장군 鎭海將軍 이 되었다. 이에 두려움을 느낀 중앙귀족들은 그의 딸을 문성왕의 왕비로 맞아들이는 것을 반대하였다.

그 뒤 청해진과 중앙정부 사이에는 대립과 반목이 심화되었다. 그러자 중앙정부에서 한때 장보고의 부하였던 염장 鹽長 을 보내 그를 암살시켰다. 장보고가 죽은 뒤 그의 아들과 부장 이창진 李昌珍 에 의해 청해진 세력은 얼마간 유지되었다. 일본에 무역선과 회역사를 보내어 교역을 계속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곧 이어 염장을 비롯한 중앙군의 토벌을 받아 청해진은 완전 궤멸되었다. 문성왕 13년(851년) 청해진의 주인을 벽골군 碧骨郡 (지금의 전라북도 김제)에 이주시키고, 청해진을 없애버렸다.

장보고는 불의에 피살되었으나, 그는 8세기 후반 이후 신라인의 해상활동의 한 정점이 되었다. 또한 신라 말기 각지에서 등장하는 호족세력의 선구적 존재이기도 하였다.

기획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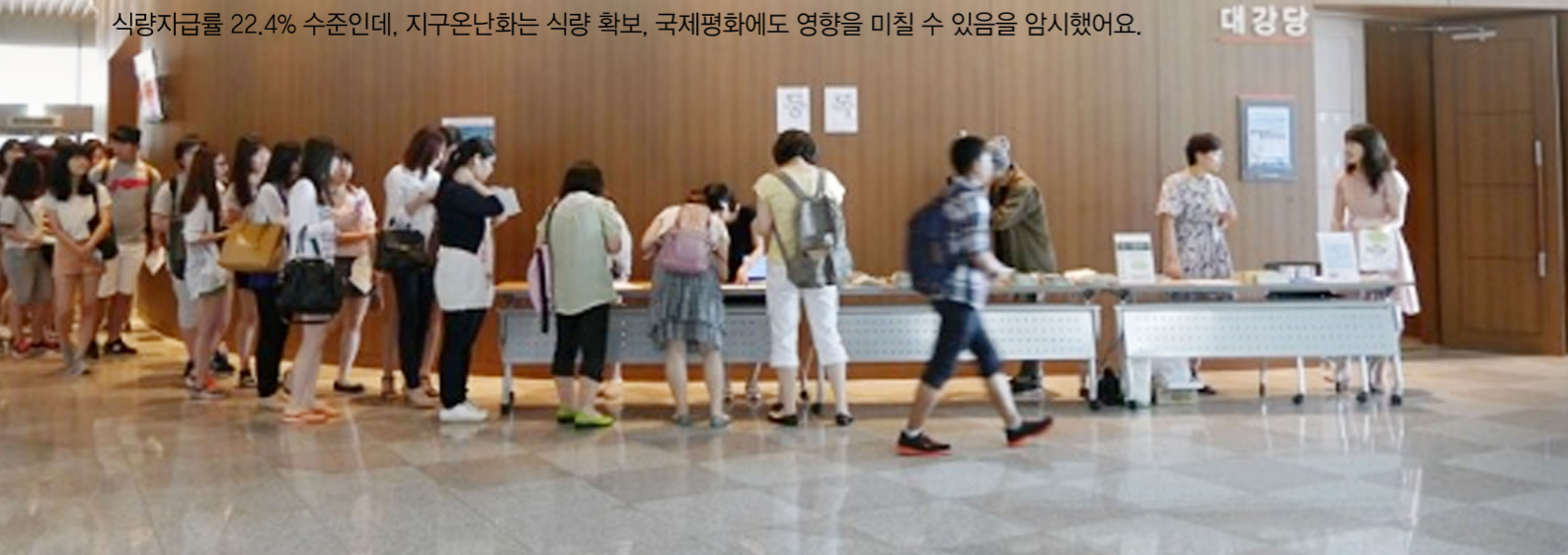
기획전 「뉴욕자연사박물관 기후변화와 해양환경」부대행사 “토크콘서트 – 기특한 만남”

안녕하세요? 환경지킴이입니다! 지난 주 수요일!! 저는 기후변화센터에서 주관하는 “기특한 만남 3탄”에 다녀왔습니다. 강연장소는 「뉴욕자연사박물관 기후변화 와 해양환경」전이 절찬리 개최되고 있는 부산 국립해양박물관이었죠.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KTX타고 달려갔어요! 부산역에서 내려 66번 버스를 타고 몇 개의 공장들을 지나면 금방 도착합니다!!!

개관한지 얼마 안되어서 그런지, 해양박물관 건물이 웅장하고 깨끗하고 너무 멋졌어요~ 게다가 대부분의 전시가 무료.관람이 가능하니 꼭 와보시길 추천합니다~!! 바다도 멀리 보이고, 여유롭고 조용한 분위기에.. 산중턱에 멀리 보이는 집들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 엘리베이터를 타고 본관으로 도착!! 문이 나올때까지 계속 직진하면 됩니다. 건물 내부로 들어오면, 좌측에 바로 [뉴욕자연사 박물관 기후변화와 해양환경전]이 보인답니다. 강연 1시간 전부터 벌써 많은 분들이 와서 줄서 있는데요~!! 그 열기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토크콘서트 10분 전 !! 관객입장 시작입니다~ 어서오세요. 입장중.. 입구 옆 음료수 코너인데요!! 제가 한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했어요!! 음료수는 무료제공 되지만, 종이컵이 없다는 거. 기후변화센터에서 주관하는 행사답게! 종이컵을 사용하지 않는 센스!! 많은 관객 분들이 수고스럽게도 개인용 텀블러를 이용해 음료를 담아가는 모습입니다.

강연 전 관객분들에게 현장이벤트로 패널들에게 묻고 싶은 질문을 문자로 보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강연자 분들께 기후변화에 대해 궁금했던 것 무엇이든 다 받습니다. 모든 조명이 꺼지고, 기후변화에 대한 영상과 함께 강연이 시작되었습니다!! 두둥!! 맨 먼저 기후변화센터 이장무 이사장님의 말씀으로 시작되었어요. 이사장님은 기후변화에 관한 몇 가지 수치들에 대해 소개하셨는데요.

2013년 현재 CO2농도는 400ppm 수준이며, 매년 2.5ppm씩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산화탄소 농도가 450ppm이 되면 지구온도가 2도 상승하는데 플랑크톤, 산호초 등이 괴사 하거나 멸종할 수 있어 생태계 질서가 깨지는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해주셨어요. 또한 기후변화로 인해 뉴질랜드의 빙하가 매우 빠른 속도로 녹고 있는데, 이로 인해 해수면이 7m상승하면 세계곡창지대인 태국 등 동남아시아 지역이 침수되어 식량위기가 초래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가축사료를 포함하여 식량자급률 22.4% 수준인데, 지구온난화는 식량 확보, 국제평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암시했어요.



전세계적으로 얽혀있는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 많은 사람들에게 심각성을 일깨우고, 기후변화대응을 위해 다함께 힘을 합하자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어서 해양박물관 관장님의 말씀이 이어졌습니다. 바다와 CO2 농도의 증가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요? 국립해양박물관 박상범 관장은 이산화탄소의 증가하면 무려 30%가 바다에 흡수된다는 사실을 소개하며, 미래의 기후변화 대응이 바다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설명을 들으니 그제서야 국립해양박물관의 “나의 바다, 나의 미래”라는 모토가 잘 와닿았네요.

최재천 교수님은 기후변화는 자연현상으로서 1차원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끼치는 결과를 여러모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더불어 의장으로서 다른 연사분들의 강연을 정리하고, 편안하고 침착한 분위기로 행사를 진행해주셨어요!! 전형적인 부산사나이의 인상을 풍기셨던 손민호 해양생태연구소 박사님,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의 관계를 말씀하셨어요. 아까 대기중 CO2가 바다로 흡수된다고 했죠? 이는 1.해수온도상승과 2.해수산성화를 야기합니다. 인간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자연의 복잡한 먹이사슬 중 하나만 끊어져도 생태계 전체가 흔들리는데요. 해양이 산성화되면 바다 속 생물들이 탄산칼슘 생성하지 못하게 되요. 소라가 껍질을 구성하는 탄산칼슘을 생성하지 못하고, 탄산칼슘 합성 전단계인 탄산염에서 정체하는 것이죠. 소라 몸체만 있고 껍질이 없으면 당연히 생선에게 잡아먹혀 금세 멸종하고 말아요. 또 굴이 먹이경쟁에서 쇠퇴하고, 산호, 갑오징어, 바다청소를 하는 불가사리 등도 멸종하게 되죠. 이렇게 박사님은 바다 온도 상승과 바다의 산성화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만 피부에 와닿는 것이 아니라, 해산물이 들어간 짬뽕을 먹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실생활의 변화부터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바람의 딸 한비아님은 언제나처럼 씩씩하고 활력있는 강연을

보여주셨어요. 기후변화와 긴급구호의 대응책 마련을 위한 길은 다양하며, 더 많은 한국의 젊은이들이 이 분야에 동참해 주기를 권했습니다. 특히 한비아씨는 한국의 국제적 인재를 “양적”으로 상당히 부족한 상황임을 강조하였는데요. 환경과 기후변화를 집중연구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일, 국제적 긴급구호의 자금을 확보하는 일, 구조시스템을 구축하는 일, 구조요원의 “양적” 증가 및 전문화 등에 대해 적극 도전하라고 말했습니다. 한비아님의 강연을 들으니 갑자기 꿈이 샘솟는 기분. 진짜 에너지가 넘치십니다.

이어서 예상치 못했던 이번 토크콘서트의 숨은 에이스!! 환경재단-롯데백화점의 대학생활동 사룻데 그린드리머즈의 김성민군입니다. 무대를 여유롭게 활보하며 녹색일자리와 청년 실업의 상호보완관계에 대해서 설명해주었어요. 아마 당장 취업이 닦친 대학생 관객들이 공감했던 토크가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김성민 군은 지구환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비전”을 남들이 선호하는 특정 직업으로 한정짓지 말고, 보다 큰 세계관 인생관으로 확대해보자고 당당히 말했습니다.

이어서 모든 연설자와 관객들이 함께 참여하는 좌담회가 활발히 진행중입니다. 많은 관객들이 환경분야 꿈과 현실의 괴리에 대해 질문했는데요. 어떤 직업을 가져도 힘든것은 마찬가지이므로 자신이 하고싶은 직업을 해보라는 꿈의전도사 한비아님, 환경분야만 국한시키지 말고, 어떤 분야든지 각 분야에서 자신의 전문성을 갖고 닦으며 언젠가 환경에 대해 깊게 파헤칠 기회를 노려보라는 롯데백화점 김종환 마케팅 팀장님의 말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오랜시간 기다린 후 무대에선 허각씨!! 유명한 곡들을 열창하시며 훈훈하게 본 행사를 마무리 해주셨어요!! 좋은 행사에 기여이 참여해주신 허각씨에게도 감사합니다.

소장품 이야기

나전 빗집(해양151)



우리나라 전통적인 가옥구조는 온돌을 이용한 난방 방식에 천장을 낮게 만들고 방의 폭을 좁게 하여 실내 바닥이 여름철에는 시원하고 겨울철에는 바닥의 온기만으로도 따뜻하고 아늑한 공간이 되게 설계하였다. 이런 실내 구조는 가구의 형태에도 자연스럽게 영향을 주게 되어 가구 제작 시 낮은 다리를 붙여 바닥의 열기나 한기가 통할 수 있도록 만들고 뚫린 부분에는 안정감과 장식적인 효과를 위해 풍혈과 같은 얇은 판을 덧대어 달았다.

이렇듯, 실내에서 사용하는 가구들은 천장의 높이와 앉은키에 맞춰 낮게 만들어 옷장과 책장, 탁자와 같은 큰 가구들은 벽에 붙이고 화려한 장식보다는 아담하고 소박한 형태의 가구를 선호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가구는 남성들이 사용한 사랑방가구와 여성들이 이용한 안방가구, 부엌가구, 끝으로 기타 가구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여기서 소개할 나전 빗집은 부녀자들이 머리를 빗거나 화장을 하기 위한 소도구인 빗·가리개·첩지·뒤꽂이·비녀·화장용품 등을 넣어두는 여성용 가구로서 경대와 비슷한 형태를 갖추고 있으나 거울이 없고 서랍만이 있는 형태로 여러 개의 서랍을 달아 당시 신부들의 혼수 중 필수품 가운데 하나였다.



국립해양박물관 소장품 중 하나인 이 나전 빗집은 몸체 전체에 흑칠을 하고 앞바탕과 서랍 바탕에 화려한 나전을 이용하여 십장생·뇌문·귀갑문을 조밀하게 부착하였다. 주로 여성들이 많이 사용하는 특성상 다산과 장수·복을 상징하는 원앙과 박쥐·복숭아·거북이 등을 전면에 장식물과 들쇠로 만들어 서랍과 앞바탕에 부착하였고 바닥은 작은 다리를 붙여서 사용 시 움직임과 보관이 편하게 만들었으며 받침다리 정면에는 초엽형태로 풍혈을 달아 장식효과를 주었다.

빗집의 몸체와 천판에는 감잡이를 달아서 가구로서의 안정감과 장식효과를 주었다. 감잡이는 망두형 거말잡이와 새발감잡이를 부착하였고, 앞바탕은 투각초문 사각앞바탕에 거북이를 걸쇠를 붙여서 장식미를 강조하였다.

제작 시기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제작되었다.

박물관 사람들

박물관은 과거를 현재에 펼쳐서 보여주고 미래를 예상하는 시간의 집중점 같은 공간입니다. 때문에 박물관은 고풍스러움과 첨단이 공존하는 아이러니한 공간이 됩니다. 이러한 시간을 압축하는 기술은 크게 과거의 유물을 발견하고 수집하며 보존 처리하는 방향과 보다 많은 사람에게 효과적으로 밀도 있게 정보를 전달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박물관이 단순히 유물의 순서 나열에 따라 정보전달을 하고 있었다면 현대의 박물관은 시각 청각뿐만 아니라 스마트 기기의 높은 보급률에 힘입어 한정된 공간에서 미처 전달하지 못한 자세한 내용들을 직접 QR코드로 손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립해양박물관에는 아직 적용되지 않았지만 PDA나 오디오가이드를 통해 해당 유물의 일정거리 이내로 접근하면 RF센서가 인식하여 자동으로 해당 전시물에 대한 정보가 전달되도록 하는 시스템도 있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추가적인 정보의 효과적 전달의 측면에서 고려하면 AR(Argumented Reality: 증강현실)과 스마트기기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스마트폰의 카메라로 해당 유물을 비추면 유물의 추가적인 정보가 디스플레이에 표시되며 네트워크를 이용한 외부 링크를 추가하는 방식입니다.

가까운 미래에 실현될 수 있는 방법으로는 VR(Virtual Reality: 가상 현실)기술을 이용하여 단순히 유물을 전시하는 것이 아닌 관람객을 해당 유물이 제작되고 사용되던 옛날의 한 시점으로 데려가는 체험을 제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실감이 나려면 고급 기술들이 좀 더 상용화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즘 유물전시시의 추세는 이전과 다르게 관람객 친화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조금 더 가까이 실감나게 감상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배려되는 반면에 파손의 위험은 한층 높아졌습니다. 박물관의 전시기법과 패러다임이 사용자관점으로 이동하는 만큼 방문하는 사람의 자세도 같이 발전하지 않는다면 전시 담당자와 박물관은 다시 예전방식의 전시로 회귀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국립해양박물관의 전시를 위한 시스템은 아직 개선 되어야 할 부분이 있으며 향후 적용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방법들을 고려 중입니다. 하지만 참신한 발상과 편의를 추구하는 것만큼 시스템이 기존 성능을 얼마나 유지 할 수 있는지, 문제 시 보수는 손쉽게 가능한지 등을 면밀히 고려하는 것 역시 중요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지훈(국립해양박물관 시스템관리팀 대리)



박물관 교육행사



어린이박물관 구연동화 | 우리바다를 지켜요

매주 수~금요일 11:00~12:00 / 유아 / 80명 / 어린이박물관 / 인터넷 및 현장 접수 / 무료

바다에 함부로 버려진 쓰레기로 인해 물고기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과 바다를 지키기 위한 우리의 작은 실천 방법을 구연동화와 동요를 통해 배워보는 유아교육프로그램

문화소외층 교육복지프로그램 | 산촌마을 어린이 바다기행

8월 7일~9일(2박 3일간) / 산촌마을 어린이 초청 / 20명 / 지역교육청을 통한 추천 및 신청 / 무료

해양클러스터 내 주요기관과 협력하여 바다를 접하기 어려운 산촌마을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해양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해양문화의식의 확산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특별프로그램

구분	시간	일정	교육기관
1일차	오리엔테이션	- 개강식 및 교육일정 안내	국립해양박물관
	박물관 관람	- 박물관 전시해설(학습지 이용) - 4D관람	
	해양극장	- 바다와 관련된 영화 감상	
2일차	선박승선체험	- 한바다호 견학 - 아치호 승선 체험	한국해양대학교
	영도해양생태이야기	- 해양생태체험	영남씨그랜트센터
	레크리에이션	- 레크리에이션	국립해양박물관
3일차	해양환경체험교육	- 해양환경 체험전시 및 방제체험	국립해양박물관
	○○日記	- 기행록 작성	해양환경개발교육원
	수료식	- 수료증 수여 및 기념촬영	국립해양박물관



박물관 소식



국립해양박물관 개관1주년기념, UCC 공모전 개최

2013.7.1~8.17

국립해양박물관은 개관 1주년을 기념하여 「국립해양박물관 홍보 UCC 공모전」을 개최 합니다. 공모주제는 박물관 소개, 로고송, 응원메시지 등으로 다양한 소재를 창의적이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만들어 박물관을 알릴 수 있는 내용이면 됩니다. 박물관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니 많은 관심과 공모 바랍니다.



전국 시도교육감, 기후변화와 해양환경展 관람 2013.7.5

5일, 임해경 부산시교육감을 비롯한 전국 교육감 6명이 기획전시실에서 열리고 있는 <뉴욕자연사박물관 기후변화와 해양환경展>을 찾았습니다. 이번 관람은 전국시도교육감대회 공식일정으로 기획된 것으로, 전시를 관람한 교육감들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교육감 전원이 기후 변화 대응실천을 함께 약속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KBS 찾아가는 음악회 「TV문화속으로」 '한밤의 Jazz 페스티벌' 방영

2013.7.30

국립해양박물관 개관 1주년을 맞아 KBS 찾아가는 음악회 「TV문화속으로」 '한밤의 Jazz 페스티벌' 이 해오름마당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시원한 바다 바람과 함께 감미로운 재즈의 선율이 박물관을 찾은 많은 시민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부산일보

2013.7.1

[Sea&Talk] 출범 1년 박상범 국립해양박물관장

다부진 체격, 까무잡잡한 얼굴에 상글상글 웃는 정다운 모습이 박물관장 직함과는 다소 어울리지 않았다. 서울 퍼런 시절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했다던 그의 이력은 더더욱 그랬다.

지난해 7월 9일 '국내 최초의 종합해양박물관'이라는 수식어를 달고 부산 영도에 국립해양박물관이 문을 열었다. 박물관은 성공적으로 연착륙했고, 그 중심에는 박상범(56) 관장이 있었다.

그가 어떻게 박물관과 인연을 맺게 됐는지 궁금했다. "원래 부산이 고향이에요. 남부민동에서 태어났죠. 초등학교를 다니다 서울로 이사를 갔습니다. 육사를 졸업하고 1986년에 사관학교 특채로 공직에 입문했는데 교통부 수로국에서 사무관으로 처음 일했어요." 이후 영국 리즈대학에서 교통학 석사 과정을 마친 그는 교통 계획·공학 주전공을 살려 건설교통부에서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재작년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도식계획국장으로 일했어요. 그때 세종시의 박물관단지 계획을 수립하면서 박물관과 처음 인연이 됐죠. 나중에 박물관을 저만큼 아는 사람이 없다는 말이 나오더니 박물관장으로 딱하니 발령이 나 있었습니다.(하하)"

개관 1주년을 앞둔 현재, 박물관이 거둔 성과는 수치로 확인되고 있다. 박물관은 지난 29일 누적 관람객수 160만 명을 돌파했다.

"처음 한 해 목표는 75만 명이었어요. 개관 첫 해 연간 관람객수 부문에서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에 이어 3위에 올랐다는 건 놀랍습니다." 그는 성공 요인으로 먼저 부산과 전국 각지에서 온 관람객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를 꼽았다.

"직원들이 홍보도 잘 해했고, KTX와 국제크루즈터미널과 연계하는 계획도 성공적이었어요. 전시 내용과 부대 프로그램을 재밌고 유익하게 만든 것도 좋은 성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박 관장은 박물관을 온 가족이 다시 찾고 싶은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들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상설전시장은 지속적으로 새롭게 꾸미고, 다양한 기획전시를 두 달에 한 번꼴로 기획해 볼거리를 늘리고 있다. 부산항축제나 부산빛축제 등 지역축제도 박물관 일대로 끌어들이었다.

그는 늘 에너지가 넘친다. 아이디어도 넘친다. 그래서 직원들이 피곤하다. 권위와 격식을 따지지 않다 보니 직원들로부터 직접 불만을 듣기도 한다. "솔직히 퇴직이 얼마 안 남았는데 맘만 먹으면 편하게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지금 좀 더 헌신하고 열정을 쏟는다면 먼 훗날 박물관은 크게 달라져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 점으로 직원들에게 설득하고 함께 소통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는 요즘도 기관, 기업, 시민단체의 문을 쏙 새 없이 두드린다. 예산을 따내고, 박물관의 콘텐츠를 늘리는 게 자신의 임무라고 말한다.

"다음달에는 북극항로에 대한 부산항의 효용가치를 담아 극지체험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올해 말이나 내년 초 박물관이 법인화되면 자생력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수익 구조와 후원금 체제 구축 등 할 일이 많습니다." 더 큰 목표도 세웠다. 그는 천혜의 해안절경을 지닌 영도의 강점을 살려 박물관 일대에 해양과학관과 선상박물관 같은 해양 관련 박물관들을 집적시키고 싶다고 말했다. 박물관 일대를 해양문화·예술의 거리로 만들고 해양민속축제를 열고 싶은 꿈도 있다.

"박물관은 단순한 전시공간에 머물러선 안 됩니다. 중장기적으로 박물관이 해양문화 연구와 조사, 발굴의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튼튼한 초석을 쌓아가겠습니다."

이대성 기자

관람후기

국립해양박물관을 다녀와서

초등학교 교육복지실에서 근무를 시작하면서 늘 고민을 해야했다. 아이들에게 많은 경험과 추억을 갖게 해주고 싶은 마음은 많으나 우리가 살고 있는 통영은 그러기엔 좁고 좁아 보였다. 아이들과 자주 만나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들이 기차를 타고 싶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기차를 보기조차 힘든 지역이라 아이들과 좋은 추억을 만들고자 코레일에 우리 아이들의 이야기를 남기게 되었다. 그런데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

코레일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기차를 타고 부산시까지 초대하여 국립해양박물관과 소방정까지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하셨다. 학교와 아이들 학부모님까지 한마음으로 좋아하셨고 나도 기차여행이라는 이름으로 준비를 시작하였다. 아이들은 기차여행을 꿈꾸며 그날만을 기다렸다. 진주역에서 출발하기로 한 날은 아이들이 함께 가기로 한 선생님들보다 먼저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기차를 타고 부산에 도착하여 먼저 소방정을 타고 오륙도를 둘러보고 아이들과 멋진 외관의 국립해양박물관으로 가서 세상에서 제일 맛있었다는 돈가스를 먹고 국립해양박물관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4D영화를 볼 때는 아이들의 얼굴에는 행복 그 자체였다. 영화를 보고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분을 따라 역사와 환경의 중요성과 배의 새로운 것을 보고 알게 되어 무척 좋았다. 대형 유리터널로 이루어져 있는 수족관은 아이들의 눈을 사로잡고 바다거북, 상어를 볼 때에는 신기해했다. 아이들에게 직접 보고 느끼는 국립해양박물관은 좋은 체험학습의 현장이라는 것을 느꼈다. 더 많은 아이들과 함께 다시 방문하고 싶다는 마음을 남기고 우리는 출발한 진주역으로 다시 기차를 타고 달렸다. 기차 안에서 아이들의 행복한 얼굴을 보면서 코레일과 국립해양박물관 관계자분들께 감사함을 전하고 싶다. 앞으로도 이런 좋은 경험을 많은 학생들이 할 수 있기를 바라며 체험학습을 함께 해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함을 전합니다.

김은아(진남초등학교 교육복지실 지역사회교육전문가)



해양음악회

2013. 8. 10(토), 오후 6시 - 9시
국립해양박물관 사무동 앞 잔디밭(녹도)

• 공연일정 •

18:00 - 19:00 식전공연(토크&클래식)

19:00 - 21:00 본공연(부산시향 금관5중주, 7080콘서트)

출연가수_ 전영록, 여행스케치, 원미연, 바다새, 심신, 함중아, 이범학, 높은음자리 등

주최 | 국립해양박물관

주관 | 해양문화주식회사

후원 | 해양수산부

영도구

협찬 | CJ 엠로비전

